

《무엇보다 북남사이의 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합니다.》 김정은

평화보장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가르쳐주시마와 같이 북남사이의 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부터 마련하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초미의 과제이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고있다. 미국의 광란적인 핵전쟁소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핵전쟁의 불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 민족의 생존권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이러한 정세속에서는 북과 남이 올해에 예정된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아줄수 없는것은 물론 서로 마주앉아 관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수 도 없다.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환경

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지난 기간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경험을 가지고있다.

6.15공동선언발표후 북과 남은 여러차례에 걸치는 장령군군사회담들을 통하여 북남사이의 비방중상과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들을 일체 중지할데 대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실천에 구현하였으며 금강산 및 개성공업지구에서 벌어지는 경제협력과 교류를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문제들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갔다.

10.4선언에서도 북과 남은 군사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남조선에서 극우보수세력이

집권한 때로부터 북과 남사이의 대결이 격화되면서 신뢰분위기가 사라지고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만이 고조되는 엄중한 사태가 빚어지게 된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이상 하지 않는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북과 남사이에는 침예한 군사적긴장이 조성되어있으며 사소한 우발적인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는 말그대로 일촉즉발의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더우기 지금 미국은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아가는것을 한사코 가로막아보려고 위협천만한 군사적도발적으로 드러내고있다.

이러한 엄중한 정세하에서 남조선당국은 지난 시기처럼 이 땅에 화염을 피우며 신성한 강토를 피로 물들일 외세와의 핵전쟁연습에 매달리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그만두어야 하며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을 견어치워야 한다.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도발행동에 광분해도 공화국에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는 한 어찌지 못할것이며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나갈수 있다.

북과 남은 북남사이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군사적긴장완화는 현정세의 절박한 요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남사이의 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었다.

북남사이의 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부터 마련하는것은 현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진지도 70여년, 우리 겨레는 너무도 오랜 세월 분열의 비극과 함께 전쟁의 위험속에서 살아왔으며 외세의 침략책동으로 지난 세기 50년대에는 전쟁의 참화까지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오늘 미국의 침략적

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반공화국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 핵전쟁 발원지로 되고있다. 지난해 한해동안에도 미국은 우리 겨레의 평화지향에 도전하여 남조선에서 《키리졸브》, 《독수리》, 《올지프 리덤 가디언》과 같은 대규모 북침합동전쟁연습을 련이어 벌려놓고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아갔다.

이제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의 불집이 터지는 경우 그것은 불피코 열핵전쟁으로 번져질것이다.

하기에 조선반도의 평화에 대한 우리 겨레의 지향과 념원은 날을 따라 더욱 강렬해지고있다.

새해는 북에서 공화국창건 일흔둘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을 립벽경기대회가 열리

에 다같이 의의있는 해이다.

지금처럼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속에서는 북과 남이 예정된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없는것은 물론 서로 마주앉아 관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수, 통일을 향해 곧바로 나아갈수 도 없다.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의 운명과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미국의 무모한 북침 핵전쟁책동에 가담하여 정세격화를 부추길것이 아니라 긴장완화를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화답해나서야 한다.

또한 이 땅에 화염을 피우며 신성한 강토를 피로 물들일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연습을 그만두어야 하며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을 견어치워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평화수호의 강위력한 보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해도 이제 우리에게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는 한 어찌지 못할것이며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나갈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은 미국의 침략과 전쟁광기를 꺾고 이 땅의 평화와 겨레의 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보검이다.

힘이 약한 나라들을 끌라가며 치고 세계도처에 전쟁의 불구름을 식은죽먹듯 퍼붓을리곤 하는 미국이다.

지난해에도 미국은 주권국가인 수리아의 령토

에 수많은 미싸일들을 마구 퍼붓는 야만행위를 눈앞에서 지켜보고 감행하였다.

미국이 반세기이상이나 제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온 온갖 제재와 위협의 대상으로 삼아온것이 공화국이다.

미국은 조선민족의 운명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러한 미국의 전횡과 침략전쟁책동을 막자면 강력한 억제력이 필요하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것을 막고 조선민족전체의 안전을 지키자고 하여도 우리 민족이 힘을 지녀야 한다.

그 힘이 바로 공화국의 강위력한 핵무력이다.

공화국은 지난해에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함으로써 미국의

그 어떤 핵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은 결코 공화국을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

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공화국의 자주권과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그 어떤 나라나 지역도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공화국의 자위의 강위력한 핵무력은 앞으로도 공화국의 안전,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해나가게 될것이다.

리 어 금

《북과 남이 대화하는것은 환영할 일이다》

— 남조선 각계의 반향 —

새해 2018년을 맞으며 공화국이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를 위해 천명한 원칙적이고 성의있는 립장들을 남조선 각계가 적극 환영해나서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대단히 환영할만 한 제안이고 (정부)도 상응하는 립장을 취해야 한다》, 《북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 련석회의 등 을 통해 새로운 교류와 협력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올해에 통일운동단체들이 북남관계개선에 앞장설것을 다짐하였다.

《련합뉴스》, 《한겨

레》, 《통일뉴스》, 《자유시보》를 비롯한 남조선 언론들은 《2018년 신년사 명한 원칙적이고 성의있는 립장들을 남조선 각계가 적극 환영해나서고 있다》, 《신년사를 계기로 한반도긴장격화상황이 전환점을 맞을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를 표시하였다.

남조선강원도의 지사는 《신년사의 내용과 표의 현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어서 깜짝 놀랐다》, 《크게 환영한다》, 《북남단일팀을 구성할수 도 있다》고 하면서 적극 호응해나섰다.

남조선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의 과격적인 제안은 교착국면의 남북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끌

어울릴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북의 제안이 평가올려줄필요가 없을것으로 보인다》,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 대화 그리고 민족공영의 길로 함께 가야 한다》, 《북동도들과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형제관계를 회복하면 좋겠다》, 《올해는 남북평화의 시대로 들어가는 한해가 되길 기대한다》, 《대환영!》, 《평화 대찬성! 전쟁 싫어》, 《조선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 필요하다》, 《평화로운 조선반도! 자주통일! 사랑한다》 등 북남 화해와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글들이 차넘치고있다.

본사기자

화의 첫걸음을기를 바랍니다.》, 《북과 남이 대화하는것은 환영할 일이다》,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 대화 그리고 민족공영의 길로 함께 가야 한다》, 《북동도들과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형제관계를 회복하면 좋겠다》, 《올해는 남북평화의 시대로 들어가는 한해가 되길 기대한다》, 《대환영!》, 《평화 대찬성! 전쟁 싫어》, 《조선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 필요하다》, 《평화로운 조선반도! 자주통일! 사랑한다》 등 북남 화해와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글들이 차넘치고있다.

본사기자





인공조명의 역사는 인류가 불을 발견한 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수 있다.

인간은 부시돌로 불을 일구어 밤을 밝혔다. 당시의 조명은 단순한 빛으로 어떤 물체를 비추어보는데 불과하였다.

인공광원으로 처음에 쓰인것은 우등불, 촛불 등이었으며 19세기말까지는 여러가지 물질(광술, 기름, 양초, 석유 등)을 태울 때 나오는 빛을 광원으로 리용하였다. 이후 인류는 에디슨의 발명으로 백열등을 리용하게 된다.

21세기 인류의 광원은 레드등이라고 할수 있다.

레드등은 전압을 가했을 때 빛을 내는 반도체소자를 리용한 조명기구다.

레드등은 콤팩트등이나 형광등에 비해 빛효율이 2배이상

인민들에게 더 밝은 불빛을 안겨주시려고

—삼천리조명기구공장을 찾아서—

더 사용수명도 10배이상에 달할뿐아니라 전압, 주파수파동에 따라 빛세가 변하지 않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공화국에서도 높은 품질을 담보하는 각종 형태의 레드등들이 많이 생산되고있다. 삼천리조명기구공장은 공화국에서 레드등생산을 처음으로 시작한 공장이다.

이 공장에서의 레드등생사는 인민생활향상에 언제나 마음써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주체99(2010)년 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공장 기술자들에게 몸소 레드등을 내려보내주시면서 레드등생사의 방향을 가르쳐주시었다.

인민들에게 보다 밝은 불빛을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나갈 일념밑에 이 공장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레드등생사공정에 대한 설계로부터 시작하여 프로그램작성과 생산공법 확립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갔다.

기술방조를 주겠다고 막대한 자금을 요구한 외국의 한 회사

에서는 자기들의 도움이 없이는 모든것을 자체로 하자면 6년이 지나도 못한다고 하였지만 공장에서는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단 6개월만에 우리 식의 질 좋은 레드등들을 내놓았다.

몇해전 이 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오늘 공장에 오니 하루빨리 레드등생사를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하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던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더욱 깊어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만든 레드등을 보아주시면서 장군님

의 크나큰 은정과 세심한 지도속에 공장이 짧은 기간에 첨단기술이 도입된 레드등생사공정을 새롭게 꾸려놓을수 있게 되었다고, 레드등생사는 이 공장에서 첫시작을 댄셈이라고 만족해하시였으며 질 좋은 레드등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줄데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주시었다.

오늘 삼천리조명기구공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강력한 기술력량과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추고 각종 레드등을 생산하는 룝색에네르기제품생사기지

처럼떨치고있다.

제품제작으로부터 조립완성에 이르기까지 현대적이고 지능화된 설비들로 꾸려진 생산공정들에서는 각종 레드제품들이 생산되고있다.

여기서 생산된 각종 레드등들은 김일성종합대학 3호교사와 렬명거리의 살림집들, 평양화장품공장, 류원신발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학교, 주택, 거리 등의 조명으로 리용되고있다.

오늘 삼천리조명기구공장 일군들과 기술자들, 종업원들은 인민들에게 더 밝은 불빛을 안겨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을 깊이 전해갈 일념밑에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춘경
사진: 본사기자 동창현

품질이 뛰어난 갖가지 레드제품들

삼천리조명기구공장의 제품전시장에 들어서면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하는 한다.

제품전시장이라기보다 하나의 예술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이곳에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각종 레드제품들이 조형예술적으로 전시되어 있다.

《조명에서 세계패권을》, 《자강력제일주의》, 《최첨단돌파》라는 구호가 한눈에 안겨오는 제품전시장은 자기 힘을 믿고 기적을 창조해나가려는 이 공장 종업원들의 정신세계를 말해주고있다.

사람들속에서 수요가 높은 레드등은 백열등이나 콤팩트등에 비해 수명이 오래고 교류전압 80~260V에서 밝기변화가 없으며 유해물질이 없는것으로 하여 인체에 해를 주지 않을뿐아니라 환경오염이 없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또한 레드등은 자외선 복사가 없으므로 방안에 놓은 가구들의 탈색이 거의 없다.

이곳 제품전시장에는 실내조명에 쓰이는 갖가지 종류의 레드등들도 전시되어있다. 여기에는 가정에서 많이 쓰이는 실내조명레드등들과 벽장식 레드등, 만화영화에서 나오는 동물들을 형상한 유화등, 여성들을 위한 거울등들이 아름다운 색과 모양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옆에는 특색있는 형식과 모양의 기능성레드등들도 전시되어있다. 건물외벽에 불장식을 할수 있게 갖가지 렬통한 색깔의 빛을 내는 레드등이 있는가 하면 건물내부를 화려하게 장식해주는 레드등들도 있다.

먼다음등, 바닥등, 장식꽃등, 탁상등, 투광등을 비롯하여 전시된 레드등들의 종류와 형태는 손에 꼽기 힘들정도이다.

전시장에는 이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각종 발광2극소자와 직류12V용레드등도 전시되어있는데 품질이 뛰어나 호평을 받고있다.

실로 삼천리조명기구공장의 제품전시장은 최첨단을 향해 나아가는 공화국의 조명산업발전면모를 한눈에 알수 있게 하는 속도वाद 같다.



첨단을 돌파하여 세계를 앞서나가겠다

—박성룡 삼천리조명기구공장 지배인과의 대담—

기자: 공장을 돌아보니 일군들부터 시작하여 기술자들과 종업원들이 하루빨리 조명산업분야에서 첨단을 돌파하려는 열의가 대단히 높은것이 알린다.

박성룡: 우리 공장은 일군들부터 전문지식을 가진 한다하는 기술자들이이다. 그뿐아니라 경제실무사업을 하면서도 부단히 새기술습득을 하고있으며 해마다 한가지이상 의 창의고안을 하고있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현대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때문에 지배인이나 부러가 대학에서 배운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첨단과학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몇해전에 공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사장도 30대의 전도유망한 학위소유자이다. 일군들부터가 기술에 밝고 실무가 높으니 기술자들과 종업원들도 그에 따라서 위해 스스로 분발하고있다.

기자: 공장에 설치된 태양빛을 따라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태양빛전지판들이 불만 하던데 공장에서 자체로 개발한것인가?
박성룡: 그렇다. 우리 공장 기술자들이 개발도입한 병렬형태양빛추종발전소이다.

이 발전소는 생산한 전기를 국가전력계통에 넣고 필요한 시간에 받아쓰는 발전소이다.

우리는 태양빛전지판의 추종장치와 요소들의 설계를 최량화함으로써 고정식에 비해 발전량을 근 2배로 높였으며 동시에 자체에네르기소비량을 수입산에 비해 30%정도 줄무사업을 하면서도 부단히 새기술습득을 하고있으며 해마다 한가지이상 의 창의고안을 하고있다.

지난해 10월 수십kW능력의 병렬형태양빛추종발전소에 대한 시험운행을 진행해본 결과 독립형발전소보다 초기투자는 1/2 정도, 운영비용은 1/20정도로 줄일수 있다는것이 확정되었다. 많은 단위들에서 우리의 경험을 배우러 찾아오고있다.

기자: 공장에서 새 제품개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있는가?
박성룡: 우리 공장에 이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는것은 새기술을 적극 도입한것과 함께 경영전략을 잘 짜고하는데 있지 않나.

박성룡: 우리 공장에서 제품개발과 생산, 판매를 일체화하고있다.

들을 제때에 생산에 도입하고있다.

우리 공장에서는 기술자들만이 아니라 일군들과 생산자들 누구나 새기술창안사업에 떨쳐나서고있으며 그중 우수한 착상은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매년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기자: 최근에는 어떤 새 제품을 개발하였는가?
박성룡: 지난해 우리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전시장들의 변태색현상을 줄이는 새로운 레드등을 개발하여 내놓았다.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든것을 창조적으로 풀어나갈 만만한 배심을 안고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그 과정에 밝기가 센 랭 백색레드등이 일반레드등보다 변태색현상을 심하게 일으키며 변태색현상을 일으키는 기본인자인 푸른색빛량이 레드등 변환된다것을 조사확증하였다.

기자: 이 공장 제품들이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는것은 새기술을 적극 도입한것과 함께 경영전략을 잘 짜고하는데 있지 않나.
박성룡: 우리 공장에서 제품개발과 생산, 판매를 일체화하고있다.

우리 공장에서는 기술봉사로 친절하게 해주어 구매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있다. 여러가지 건축물들과 조각상, 대형그림조명 등 각이한 조건과 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레드등을 선택하고 조명위치와 각도를 선정하는것을 비롯하여 최량



화된 기술봉사를 해주어 구매자들의 레드등구입과 설치에 도움을 주고있다.

우리 공장에서 생산된 각종 레드등은 해마다 봄과 가을에 진행되는 평양국제상품전람회들에서 커다란 인기를 끌고있다.

우리는 새해에도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품질이 좋은 레드등을 더 많이 생산해나가겠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질 좋은 레드등개발과 생산에서 더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생동하면서도 조형예술성이 높은 얼음의 세계

◆ 평양얼음 조각축전 - 2018 진행 ◆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김일성광장에서 평양얼음 조각축전-2018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축전은 지난해보다 규모가 더 크고 전시 형식도 특색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다. 저녁에는 축전장과 잇닿아있는 승리거리의 가로수들이 불장식으로 아름다운 《서리꽃》 야경을 펼쳐놓고 광장에 전시된 얼음조각들이 색조명으로 황홀한 모습을 한껏 드러내며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얼음축전에는 성, 중앙기관들을 비롯하여 조선인민군창작사, 평양시안의 여러 구역들과 교육기

관 그리고 조각에호가들이 창작한 많은 얼음조각들이 전시되었다.

축전장에는 백두밀립속에 웅장증증하게 솟아있는 정일봉과 떠오르는 아침해를 형상한 얼음조각, 백두산의 해돋이를 형상한 얼음조각이 전시되었다. 특히 백두산의 해돋이를 형상한 얼음조각은 천지호반과 태양, 밀림에 대한 색조명을 보장하여 그 예술성을 한층 더 높여주었다.

축전에는 투명하게 맑은 얼음으로 소나무와 참매를 형상한 《아침의 나라》도 전시되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사회주의강국의 강용한

기상을 누리에 떨치며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일떠선 려명거리의 70층살림집을 비롯한 초고층, 고층, 다층살림집들과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형상한 얼음조각들은 주체조선의 승리적전진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철리를 깊이 새겨주었다.

우주만리로 솟구쳐오르는 대륙간란도로케트들을 형상한 얼음조각을 보면서 사람들은 위대한 병진의 기치높이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힘있게 과시해온 격동의 한해를 긍지높이 돌이켜보았다.

만리마시대에 태어난 새형의 트락토르, 화물차

동차들과 우리의 힘과 기술로 생산한 명제품, 명상품들을 형상한 얼음조각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경제강국건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갈 공화국인민들의 의지를 잘 반영하였다.

얼음조각축전에는 유치원어린이가 내놓은 사과바구니얼음조각도 전시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칠색령롱한 갖가지 색깔의 불장식과 어울려 신비한 얼음의 세계를 펼친 축전장은 새해를 맞는 사람들에게 보다 큰 기쁨을 안겨주었고 설풍경을 더욱 이채롭게 해주었다.

본사기자



겨울철 건강유지를 위한 몇가지 방법

겨울철에는 흐린 날씨가 사람들의 기분상태뿐 아니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린다. 햇빛은 인체에서 기쁨관련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비타민D를 생성하며 생체활동을 정상화하고 잠의 질을 개선한다.

최근에 학자들은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심장병, 종양질병과 같은 병향을 미친다. 햇빛은 인체에서 기쁨관련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비타민D를 생성하며 생체활동을 정상화하고 잠의 질을 개선한다.

취하여야 한다. 비타민D는 특히 바다물고기의 간에 많이 들어있다. 닭알과 우유, 꿀, 곤은열매와 말린 과일도 먹으면 좋다. 둘째로, 하루종일 집안에 있을 때에는 창문을 깨끗이 닦아 햇빛이 더 많이 피부에 와닿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산보를 하다가 바깥공기를 쏘일 수 있다. 자외선의 절반이상이 구름층을 통과한다. 자외선의 작용에 의해 인체에서는 일산화질소가 생성된다. 일산화질소는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를 확장시키며 혈압을 낮춘다.

본사기자

아니라 체내에 흡수된 독물질에 대한 독풀이작용도 한다.

록두지집은 지방에 따라 특색있게 만든다. 평양에서 록두지집을 지지는 방법을 보면 우선 록두를 물에 불구었다가 겹질을 벗기고 물망질을 한

다. 한편 배추김치는 물에 한번 헹구어 가늘게 썰고 빨간 고추는 다지고 파는 엷썰다.

돼지고기는 비계가 붙은것으로 삶아 일부는 가

를 낳으면 3년후에 우리 소 25마리를 가지게 되



가산을 팔아먹었소이다. 나으리, 이년에게 중죄를 내려 주십시오.

《그가 너의 어떤 가산을 팔아먹었단 말이냐?》

《그처럼 큰 가산을 팔아 먹다니... 참으로 중죄를 받아 마땅하도다.》

그러자 너인이 통곡을 하면서 《남편이 말한것들은 아직 현실로 변하지 않은것이었어... 어이하 나에게 중죄를 지우려 하시나이까?》 하고 발명을 하였다.

《이년이 나의 가산을

단편소설

여 을 물 소리 (3)

글 현 명 수, 그림 박 봉 혁

《그때로부터 이태후 일본에서 사는 조선공민들은 사회주의조국으로의 귀국의 권리를 쟁취하였소. 난 선참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의사를 표명하였소. 이때봄 우리는 귀국하기 위해 집을 싸기 시작하였소. 십여년만에 처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것이였지. 그런데 나의 장인은 남편부의 울산이 고향이였소. 장인은 울산으로 가겠다고 하였지. 집사람은 무남독녀였소. 나는 그야말로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된것이요. 한동안 번민하던 나는 끝내 귀국선이 기다리는 니이가다항으로 가지 못했소. 결국 사랑과 의리를 지키자고 귀향길을 버린셈이지. ... 난 남조선에서 유전학연구사를 일하면서 예측자본의 실상을 낱알이 체험하게 되

있소. 그리고 북에 고향을 둔 나를 당국측에서도 시답게 보지 않았소. 결국 늙어 닦을 내린 곳이 암스테르담에서의 이 민생활이였구려. 나는 이 조직배양연구를 종합하여 고향에 보내려고 이 나라 주체 조선대사관의 문화참사를 찾아갔었는데 그 젊은 문화참사가 글썽... 박인철이라는 그 젊은이 는 알고보니 박석진의 아들이 아니겠소. 참 운명 이란... 결국 오늘 선생에게 이처럼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되는게요. ...》

들어서자 눈매가 부드러운 접수구의 처녀가 반기며 손을 내미는것이였다. 《부락하신 비행기표입니다.》

같아 안절부절 못하는 그였다. 그의 집은 높지 않은 둔덕에 자리잡고있었다. 하얀 울타리를 빙 둘러쳐고 남쪽으로 궁룡식대문을 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현관까지 포도나무 덩굴이 휘감았는데 포도송이들이 다락다락 매달려있었다. 좌우편에는 처음 이 집을 세내던 날



떠날 때보다는 아주 건강해보이니 말이다. 그들은 나란히 택시를 타고 돌아왔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젊은이런듯 서로 팔을 끼고 부축하며 집으로 돌아

고 속삭였다. 《역시 집이 좋구만. 뉘너뉘너해도 자기 집이 제일이지... 참, 기분이 좋소구려.》

유진은 웅청실을 지나 서재로 들어갔다. 서재의 문을 열던 그는 한동안 문지방에 우뚝 서있었다. 책상우에 놓인 한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던 것이다. 은근한 빛을 띤 은통에 넣은 밝고 퇴색한 사진이었다. 그 사진에는 조약돌이 하얗게 깔린 여울물가에 엇비슷히 누워 배꼽을 드러내고 웃어대는 네명의 별거송이꼬마들이 귀염성스럽게 찍혀있었다. 얼굴이 까맣게 타고 한쪽눈을 찡그리며 짓이 웃는 모습이 황하나 이년은 집으로 들어서며 그에게로 고개를 돌리

이 앉아있는 장난꾸러기 소년 유진의 어릴적 모습이었다. 60여년전의 어느날 마을의 대사집에 촬영하러 왔던 습거리의 마음후한 사진사가 우연히 찍게 된것이였는데 사진이 잘되였다면서 절반값만을 받고 나누어준것이였다. 이제는 무척 오랜 세월이 지나 누렇게 퇴색이 되고 구김살이 가고 귀퉁이가 험이 나들나들 해졌지만 유진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고향의 유물이였다. 언젠가 다심한 숙향이 그 옛 사진을 콤팩터로 복사하여 새것처럼 재생하여왔었는데 로인에게는 사진뿐만 아니라 그속의 수성천의 여울물이며 자기의 어릴적 초상마저도 생소하게 느껴져 다시 낡은 사진을 내걸게 하였던것이다. 지금도 유진은 이 사진을 보면서 고향 수성천의 여울물소리와 《유진아!》하고 찾던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의 일김, 체취, 저녁밥을 짓는 산골특유의 내굴냄새까지도 생생히 되새기게 되는것이였다.